

어떻게 교육을 잘 할 것인가?

: '문·이과도 넘어서고', '고전과 첨단기술도 통합'
- 신임 기초교육원장 인터뷰 / 강명구 교수

단과대학탐방

1. 현재까지 기초교육원의 가장 큰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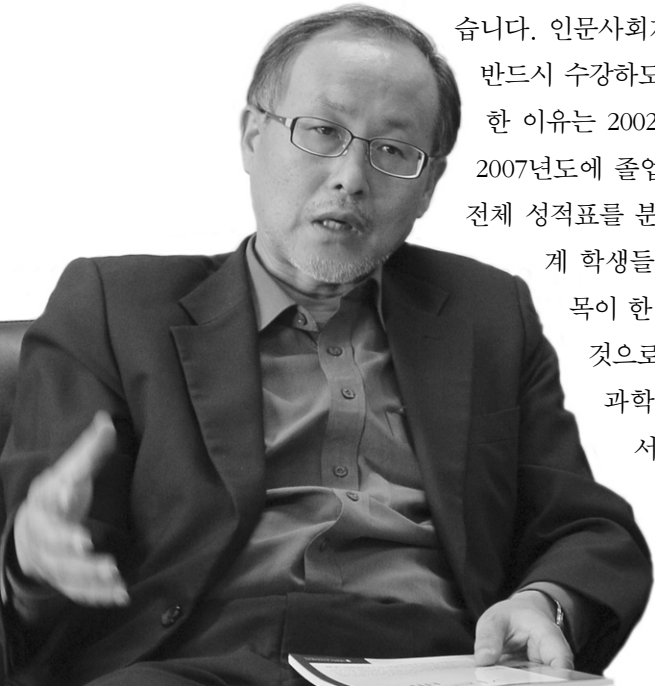
- 기초교육원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전공과정 진입 이전에 갖추어야 할 여러 기초적인 사항들을 탄탄하게 하고,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 기초교육원의 또 다른 역할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과학·공학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을 잘 하게 하고 이공계학생들이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토양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핵심교양은 4영역이었는데 반해, 08년도 입학생들부터 과학기술영역을 분야별로 5개의 영역으로 늘렸습니다. 인문사회계 학생들은 1~2영역을 반드시 수강하도록 늘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2002, 2003년도에 입학하고 2007년도에 졸업한 서울대 졸업생들의 전체 성적표를 분석해본 결과,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수강한 과학영역 과목이 한 과목씩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하면서 서울대 인문사회과학

민혜리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연구교수



을 전공한 학생들이 과학과목은 한 과목밖에 수강하지 않고, 수학은 0.02과목 듣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 않은가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이수해야 할 과학영역을 추가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초교육원이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핵심교양부분을 잘 정돈하고, 분석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졸업이수학점을 130학점으로 줄인 것은 학생들이 여러 분야를 섭렵하면서 자유롭게 공부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그 깊이를 더해가도록 대학이 지도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그 의무와 책임을 떠넘긴 결과 재수강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문제점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학생들이 일반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학생들이 필수과목과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동시에 다른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으라는 것인데, 실제로 학생들은 교양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 전공과목을 덜 들으면서 교양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다른 분야를 자유롭게 모색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예를 들어 철학을 하고 사회과학을 하고, 역사학을 하고 사회과학을 하고)이 결과적으로 교양과목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기초교육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있어서 기초교육원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기초와 같은 과목들도 잘 정돈되어 있고, 공과대학의 경우 과학기술 글쓰기라는 과목을 필수로 만들었습니다. 공대가 기금을 내고, 공대와 기초교육원이 협력하여 새로운 과목을 만든 것입니다.

2. 기초교육원의 문제점

- 기초교육원은 교육단위가 아니라 교육지원시설입니다. 따라서 소속 교수가 없기 때문에 주임교수회의를 통해 운영하는데, 원장과 부원장

외에 기획을 하고 내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팀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체계적인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지금 현재 대학영어, 대학국어, 수학기초론 등의 강의교수가 50명 정도인데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좋은 인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이곳에서 경험이 축적된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과목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과학과목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하면, 자연대나 공대나 농대 등 이공계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연구로 인해 바쁘시기 때문에 교양과목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는 소양을 가진 분들이 연구하느라 시간이 없어 웬만한 지원으로는 선생님들을 모시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공계 선생님들과 체계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만들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3. 기초교육원의 발전방안 (새로운 계획, 포부)

- 기초교육원은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시설이어야 합니다. 단과대학이 되기는 어려울 뿐더러 굳이 단과대학이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양교육을 좀더 내실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은 현재 문과와 이과가 너무 분리된 나머지, 기초교육 부분에서조차 문과와 이과가 분리되어 교육되고 있습니다. 융합적인 기초분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교양부분에서는 문과와 이과를 가르치는 구분을 희석시킬 수 있도록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과학기술교육의 기초를,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인문사회계의 탄탄한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서울대 권장도서 100선을 활용하는 등 고전교육 강화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고전교육은 부분적인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전 100선의 강의를 듣고 방학 중에 벽지고등학교에 가서 그것에 대한 강의를 함으로써 그 학생들은 봉사성적을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다' 라는 학생들 스스로의 학습과 고전교육을 결합하는 고전교육 방법을 구상하여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핵심영역으로 과학기술과목을 한 과목 더 늘리긴 했지만, 아직 개발이 덜 되어서 그 영역의 과목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교양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체능 교양과정도 단순히 예술을 예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과학을 융합한 과목으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교양과목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양이 아니라, 본래 대학 안에서 새로운 인재가 갖추어야 될 능력으로서 교양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 CTL과 기초교육원의 관계설정과 향후 협력 방안

- 교수학습센터와 기초교육원의 고민은 공히 '어떻게 학부교육을 잘 할 것인가?' 의 문제일 것입니다. 즉,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 배울 것인가?' 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 전반이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과대학 수준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거기에 책무감도 느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작업을 CTL이 기본적으로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육에 대해서 에너지를 많이 쏟는 분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

도 많이 만들고, 다양한 교육적 시도들이 교수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교수들 스스로도 '연구능력이 좀 부족해도 잘 가르치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풍토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수와 학생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지만, 현재 그것은 너무도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복돋우고, 도움을 주는 작업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잘하는 사람을 찾아내어 도와주고 칭찬하고 보상해주는 그런 틀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5. 자유전공학부와 관련하여

- 자유전공학부의 정신은 “경계를 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라는 표현은 자유전공학부가 지향하는 자유, 즉 기존 분과 학문의 경계, 동양과 서양의 경계, 과거와 미래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미래로’는 좁게는 자유전공학부의 교육을 바탕으로 뻗어나갈 개인의 미래를, 넓게는 국가와 학문, 인류 공동체의 발전적 미래를 뜻합니다.

- 자유전공학부의 교과과정은 기본적으로는 융합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자유전공학부의 기본목표는 로스쿨과 메디컬스쿨에 진학할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전공학부를 통해 법학, 의학 전공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지만, 기업에 진출할 우수인력이나 역량 있는 학자를 키워낼 수 있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자유롭지만, 들어오면 매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융합적인 교육을 한 후에 자신의 전공을 별개로 공부할 수 있도

록 할 것입니다. 융합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넘어서고', '고전과 첨단기술을 통합' 하는 그런 것입니다.

- 정리하자면, 자유전공학부의 교육은 크게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둡니다.

첫째,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 할 수 있는 학생 설계 전공입니다. 학생 스스로 관심 분야를 결정하고 이를 전공으로 심화하게 함으로써 '신나는 공부', '열정적인 도전', '책임이 뒤따르는 자율'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문 영역들이 지속적으로 분화 및 융합을 거듭하는 현 추세에 대처하는 방법인 동시에 분과 학문의 벽에 가로막혔던 학생들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신장시켜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학생 설계 전공 체계에서는 교과 선택, 교과 설계 등에서 학생의 의사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 학습을 바탕으로 한 발표 및 토론, 의견 교환 중심의 세미나 수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하는 데 밑바탕이 될 폭넓고 깊이 있는 기초 교육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류가 축적해온 정신적 유산을 충실히 습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절실합니다. 새로운 발전은 결국 현재의 것에 그 토대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전공학부는 문과와 이과 분리 교육에 따른 지식의 편향을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기초를 익히도록 함으로써 시야의 확대와 잠재성의 발현을 도모하려 합니다. 동서양 고전 읽기, 글쓰기, 철학, 수학, 기초 과학 등을 필수 교과로 하여 토대 능력을 배양할 계획입니다.

셋째, '나'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고 인류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고와 행동입니다. 자유전공학부는 개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인재를 키우고자 합니다. 지금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 고민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봉사, 인턴, 해외 파견 학습 등의 경험을 강

조할 것입니다.

탄탄한 기초 소양, 자율성과 창조성, 포괄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지니고 스스로 선택한 어느 영역에서든 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이것이 자유전공학부의 목표입니다.

- 자유전공학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교육이념과 정신을 바탕으로 기초교육원이 인큐베이팅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강의시리즈와 교수법 가이드 발간

다양한 우수강의 사례를 발굴하여 좋은 강의의 모델로 활용함으로써 서울대학교 강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대학교 우수강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자의 교수(teaching)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수업운영기술을 담은 '교수법 가이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교육지원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80-5387, tweety05@snu.ac.kr